

建築許可規制 緩和建議 · 貫徹

본 협회는 지난 '90년 5월 이후 10차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건축허가 규제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회원의 가중되는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국민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건전한 건축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안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趙相鎬 理事) 구성과 실무작업반(지휘 朴景煥 상근부회장)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경제현상을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직적이고 체계화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 개선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에 건의한 결과, 본 협회 의견이 100% 수용·반영되어 7월 1일부터 규제조치의 일부해제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대책반

위원장	趙相鎬	本協會 理事
위원	李文雨	서울建築士會 會長
//	李一潤	경기建築士會 會長
//	成勳燮	부산建築士會 會長
//	徐廷珉	광주建築士會 會長
실무작업반	朴景煥	本협회 상근부회장
	金海銓	本협회 건축법령연구소장
	鄭明秀	기술과장
	李默	총무과장

※ 특별자문 : 國土開發研究院

건의서

건설경기의 과열로 건설자재가격 및 노임의 급등현상이 나타나는 등 우리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에 대하여 우리 전국 3천8백여 건축사 일동은 현 경제 여건하에서는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과 바람직한 건축행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이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제한조치 현황

- 기간 : 1990. 5. 15 - 1992. 6. 30(10차)
- 대상 : 재건축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 및 숙박시설, 업무시설, 관광·집회·전시시설 등 전반.
* 주택건설물량할당제 실시. (실질적 허가제한 효과)

문제점

1. 사회적인 측면에서

- 가.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난 악화.
-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량 격감.
('91. 1/4분기 대비 '92. 1/4분기 건축물 설계도서신고 연면적 23% 감소)

1991. 1/4분기	→	1992. 1/4분기
37,219,358m ²		28,532,359m ²

※ 건축허가제한 직전 건축경기 활황시 신규 개업한 건축사사무소의 타격이 큰 실정임.

- '90. 1 ~ 5월중 개업 건축사 수 : 153명
-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및 가족생계위협 : 약 27만명 추정.
-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사무소형태별		
		단독	종합	용역
계	53,886	10,806	42,840	240
건축사	3,856	1,801	2,040	15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50,030	9,005	40,800	225

※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및 가족 : 269,430명 추정 (53,886 × 5인 가족)

나. 건축관련업계의 경영난 심화.

- 공영택지 매입대금 납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분양시기 지연으로 자금난 악화.
 - 중소기업의 업무량 격감으로 경영난 심화.
-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적시 적소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 초래.
○ '91년 1/4분기 대비 '92년 1/4분기 건축물설계도서신고 연면적 증감비교

용도별	'91년 1/4분기	'92년 1/4분기	증감비율
단독주택	4,282,262m ²	2,346,383m ²	- 45%
다세대주택	2,688,544m ²	473,800m ²	- 82%
연립주택	696,551m ²	303,712m ²	- 56%
근린생활시설	6,599,385m ²	3,788,633m ²	- 43%

2. 경제적인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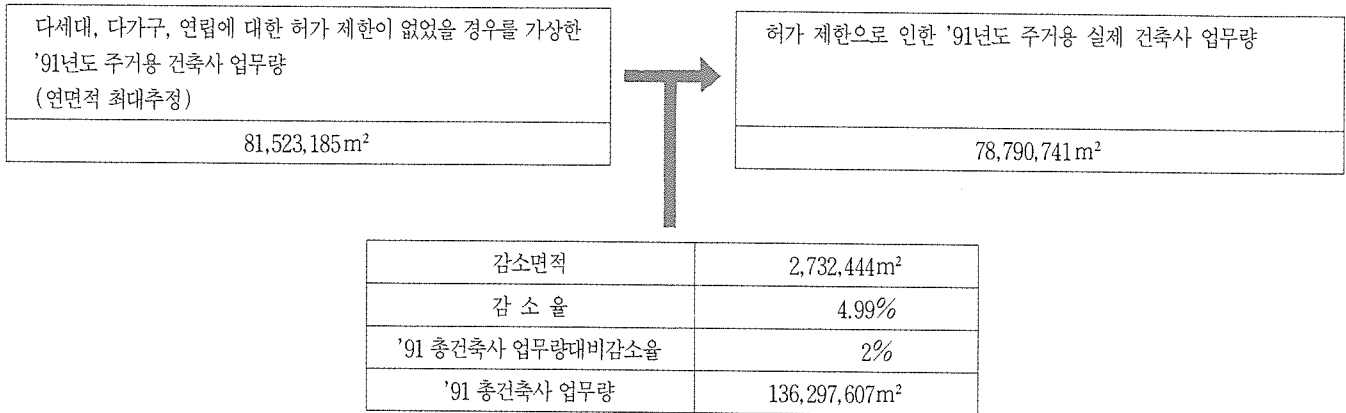
- 가.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재상승 우려.
- 일반 주거용 건축허가의 급격한 감소 → 수요·공급의 불균형 초래.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의 전환 우려.
- 나. 건설자재수급의 불균형 심화.
- 건설자재산업의 건설경기에 대한 적응력 미흡.
○ 건설경기 활황 → 자재부족현상 (자재파동)
○ 건설경기 둔화 → 자재의 재고급증, 결과적으로
* 일부 자재생산업체의 도산
* 자재생산시설 증설계획 연기
- '94년경으로 예측되는 건설경기 회복시 자재폭등의 재연 우려.

건의

국가 시책을 수용하면서,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민간 건축계획을 도모하며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악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

계에 있는 건축물 중 전체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인 완화조치를 건의합니다.

1. 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재건축분 포함)



※ '92년도 건축동향은 건설경기의 침체, 허가규제의 계속으로 인하여 '91년도와 비교 건축사 업무량이 동일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재건축포함)에 대한 허가제한을 해제할 경우라도 '91년도의 감소치 이상으로 증가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주거용 건축허가등 주택공급은 주택가격보다 1년~1년반정도 늦은 시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로 미루어 보아 '9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추세의 영향은 '92년 하반기 또는 '93년 상반기부터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없더라도 주거용 건축허가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92년 하반기부터 인위적인 규제는 점차 해제하기 시작하여 '93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주택가격 및 주거용 건축허가추세

년 도	주택가격('90. 12월 = 100)	주거용건축허가 (천 m ²)
1981	47.5 (-)	10,308 (↓30.1)
1982	48.4 (2.0)	16,651 (61.5)
1983	59.0 (↑21.8)	21,706 (30.4)
1984	61.0 (3.5)	20,551 (↑ 5.3)
1985	60.7 (↑ 0.5)	20,606 (0.3)
1986	59.0 (↑ 2.8)	22,518 (9.3)
1987	62.6 (6.1)	21,639 (↑ 3.9)
1988	71.2 (13.8)	29,136 (34.6)
1989	81.3 (14.2)	47,509 (63.1)
1990	100.0 (23.0)	70,928 (49.3)
1991	98.1 (↑ 2.0)	59,060 (↑16.7)
1992	86.9 (↑ 1.3)	46,607 (↑21.1)

* ()속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주택가격은 연도말 기준.
 * '92년도 자료는 국토개발연구원 추정치임.

2. 근린생활시설

- 660m²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결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사업무가 약 2.58% 정도만이 감소되었을 뿐이며, 그 면적은 2,234,581m² 정도로 이는 총 건축사 업무 대비 1.6%의 감소에 불과한 것임.

※ 건축허가규제도 일반적인 경제정책운용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시기를 정하여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

*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과 기타 관람, 전시, 관광휴게시설.

이상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허가제한대상 건축물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중요도에서 앞서고, 규제를 해제했을 경우 예상되는 증가면적 또한 총 건축허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약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드리오니 이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6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오운동외

전국 3천8백여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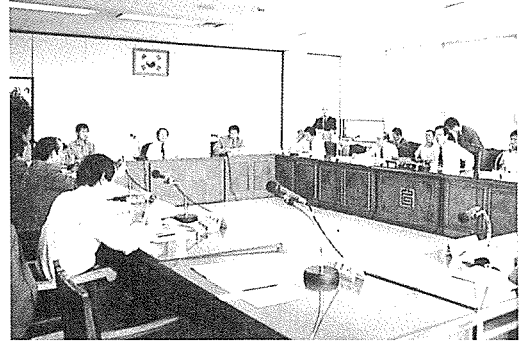
* 지면관계상 참고자료는 생략함.

이사회 개최

'92년도 제 5회 이사회가 오운 동 회장의 주재로 지난 27일 (토) 10시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협회 주요현안과 부의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부의안건의 주요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3년도 예산편성위원회 위원 선임
- 1993년도 예산 편성위원회는 위원장 조상호, 부위원장 김무언, 위원 이외구, 강태석, 김영수 이사를 선임키로 하며, 각 시·도건축사회별 위원선임은 각 시·도건축사회 회장에게 위임하되 가급적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주도록 요청키로 함.
- 윤리 규약상의 덤핑기준 결정 - 설계공사, 감리업무에 따른 보수액 결정은 정부예산편성 지침서상의 공사비 단가를 적용키로 함.
- 경북건축사회 영천분회 신설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직원 정원조정(안) 승인
- 원안대로 승인(대전건축사회)
- 건축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리제도 및 조사, 검사 대행업무 수행지침건의(안) 승인
- 조사, 검사 영역의 설계와 감리 분리 시행건은 향후 1년간은 종전 규정과 같이 2층이하로서 1,000㎡미만에 대한 모든 건축의 설계, 감리를 분리 시행하고, 엄격한 감리제도(건축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6.25)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4층이하로서 2,000㎡미만인 모든 건축물(아파트 제외)로 확대 여부 결정토록 건의키로 결의함.
- 직원 인사발령(안) 승인
- 조병은 총무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사무처 직원 약간명을 인사발령키로 결의함.



이사회 광경



조인식 광경

서울·동경건축사회 교류 각서 조인

서울건축사회(회장 이문우)는 지난 6월 9일 본협회 대회의실에서 동경건축사회(회장 淸家 淸)와 양국 건축사 상호간의 이해 및 우의 증진과 상호 기술 교류 및 정보 자료 교환 등을 목적으로 「서울·동경건축사회 교류 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 건축사

회는 기술 교류 및 간행물 등 정보 자료의 교환, 외국의 제도, 시책 및 기타 자료의 교환, 학술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의 상호 참여 및 공동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사항등의 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조인 함으로서 상호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건축허가 제한조치의 해제에 대한 건의

본 협회는 지난 6월 4일 '90년 5월 이후 10차에 걸친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한 회원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사안에 대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이의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접촉을 벌였다.

청와대, 경제기획원, 건설부, 민자당 등에 제출한 이 건의서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다가구(재건축분 포함)

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락, 숙박, 휴게, 관람, 전시 시설에 대한 착공시기지정 허가방안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9일자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면적 1천 5백㎡ 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가구당 전용면적 135㎡ 미만의 재건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하였다.

임인혁 전사무처장 퇴직

'74년 2월 24일부터 '92년 6월 5일까지 약 18년간 본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인혁 전 사무처장이 지난 6월 5일자로

의원 사직하고, 6월 8일 정안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본 협회 회원으로 입회하였다.

경로 소연 개최

경기도 건축사회(회장 이일운)에서는 지난 6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예산군 소재 수덕사에서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경로 효

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건축사회 소속 65세 이상원로회원 32명을 초청하여 경로 소연을 베풀었다.

메가테크아시아 대표 내방

세계적으로 건축설계프로그램 분야에 권위가 있는 독일 메가테크사 아시아 지역 대표인 요한 토스씨가 지난 2일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소개차 본 협회 吳雲東 회장을 내방하였다. 이 자리에는 건축전산위원회 안영준이사가 함께 배석하여 건축전산 개발에 관한 협회가 있었다.

'92 한국건축전 광주전시회 개최

'92 한국건축전 광주전시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5일간 남도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어 지역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건축사회(회장 서정민)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회원 작품 60여점을 비롯하여 신인·학생 수상작 등 총 90여점이 전시되어 건축관계 전문인뿐 아니라 각급학교 건축전공 학생 등 연인원 2천 5백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었다.

광주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된 이번 광주전시회의 17일 개막식에는 본 협회 오운동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광주직할시의회 산업분과 위원장을 위시한 각계 지도급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KBS, MBC TV를 통한 보도를 비롯한 지역언론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시회 광경

광주건축사 신협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광주 건축사회(회장 서정민)에서는 지난 26일 고창 선운사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본회 및 신협 발전을 도모코자 광주건축사 신협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광주지역의 회원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신협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송양식(한미 건축사 사무소) 회원을 비롯한 5명의 회원에 대한 공로패 및 상품수여를 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레크레이션을 개최하고 참석회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하였다.



공로패 수여식 광경

'92 건축사 보수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서울관내의 건축사 4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을 필두로 하여 전국 시·도 건축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92 건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에 앞서 우리나라 건축 풍토 쇄신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일부 건축사 업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건축사업무쇄신 다짐대회를 병행 개최하였다.

각 시·도 건축사회 별로 실시된 이번 교육의 일정 및 참석인원은 다음과 같다.

기별	일 정	참가건축사회		대상 인원	교육진행	교육장소	비고 (교육협조)
		구분	인원				
1	1992. 6. 5 (금)	서울	670	463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건축사업무 쇄신다짐대회 병행
2	1992. 6. 8 (월) ~ 6. 9 (화)	인천 경기 제주	108 321 41	471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경기도
3	1992. 6. 11 (목) ~ 6. 12 (금)	서울 강원	319 55	465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서울시
4	1992. 6. 15 (월) ~ 6. 16 (화)	대전 충북 충남	113 78 58	247	대전 건축사회	대전 카톨릭 문화회관	대전시
5	1992. 6. 18 (목) ~ 6. 19 (금)	광주 전북 전남	125 80 49	254	광주 건축사회	광주 어린이 대공원 대강당	광주시
6	1992. 6. 22 (월) ~ 6. 23 (화)	대구 경북	258 96	354	대구 건축사회	대구 시민회관 소강당	대구시
7	1992. 6. 29 (월) ~ 6. 30 (화)	부산 경남	426 204	629	부산 건축사회	경성대학 강당	부산시
8	1992. 7. 2 (목) ~ 7. 3 (금)	서울	372	463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서울시
9	1992. 7. 6 (월) ~ 7. 7 (화)	서울	414	463	본협회	본협회 대강당	서울시
계		15개건축사회		3,809			

손명문 회원 개인 건축전 개최



본협회 경북건축사회 손명문(건축사사무소 건·환)회원의 개인 건축전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자신의 사무소인 경주 건·환사옥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경주를 비롯한 주변 지방의 문화행사적 이슈가 되었을 정도로 많은 호응과 갈채를 받았으며, 작가 자신의 평소 작품과 계획안들이 패널과 모형으로 구성되어졌다.

이 전시회에는 건축인은 물론 김태웅 경북건축사회 회장, 손경호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동천 경주시의회 의장 및 시내 주요 기관장들을 비롯하여 학생으로부터 노인애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손명문·회원의 이번 건축전은 몇가지 이유에서 크고 작은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공식적인 건축가의 개인 건축전이 풍성치 못한 우리의 건축계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전시회를 열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이며, 둘째는 국내 건축가들 보다는 외국건축가들의 국내 전시회가 더 의미있고 가치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작은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서울이 아닌 천년고도의 역사도시인 경주에서 열렸다는 점인 바, 이는 경주라는 역사적 지역적 주제에 대한 하나의 압중모색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넷째는 이번 전시회가 경주를 비롯한 주변 지방의 건축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며, 다섯째는 이제 30대 후반에 이른 도상 건축가의 조임스런 자기선언이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건축가의 전시회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이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대중 앞에서 발가벗기는 무대이기에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 현대 건축가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에 인색했다.

이러한 건축가의 전시회야말로 건축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기에 오늘의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건축수'이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정합니다.

지난 6월호 "건축사"지에 게재되었던 이용재씨의 "21세기 건축을 향하여"의 내용중 64, 65 페이지와 66, 67 페이지의 순서가 제작상의 착오로 인하여 바뀌었기에 정정합니다.

제 1 회 韓國建築文化 大賞 作品公募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사업협회·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등 유관 4개단체가 후원하는 제 1 회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작품응모가 8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정된 건축문화 분야에 관한 국내 유일의 시상제도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을 빛어낸 설계자·시공자·건축주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축을 문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건인차 역할을 한 주인공들을 격려코자 합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의 시상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작품 제출 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대신 국내 최초로 현장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찬란한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를 이어 받아 민족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건축공간을 창조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시대의 역사적 책무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성장에 발맞춰 건축이 문화의 차원으로 올라서 실제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요강◇

- 賞의 종류
 - 大賞 1점(전건축물 대상)
 - 本賞 4점(주거용·非주거용 각 2점)
 - 공로상(건축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입선작 다수
- 시상시기: 10월초(연 1회)
- 시상대상: 시행연도 및 전년도에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
- 응모기간: 6월 10일~8월 30일
- 응모자격: 설계자, 시공자 또는 건축주
- 제출서류
 - 작품설명서와 기본설계도면이 포함된 B4 규격(25.6 × 36 cm)의 작품사진첩(8 × 10인치 사진 10장내외) 2부
 - 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2부
 - 패널은 입선작에 한해 추후 제출 통보(제작비 일부 지원예정)

- 접수 및 문의처
 - 우편번호 110 - 792
 -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사 편집국사회부 (☎ 724 - 2457 ~ 8)
 - 본협회 출판사업부 (☎ 581 - 5711 ~ 4)
- 제출방법: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송 제출
- 심사: 관계전문가 및 사회각분야 저명인사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서류심사후 현장방문 심사
- 시상내용
 - 본상이상 설계자·시공자 및 공로상수상자 - 상패수여 및 해외시찰(중국 예정)
 - 건축주 - 상패 및 동판(건축물부착용)수여
 - 입선작 설계자·시공자-상패
- 시상자: 건설부장관·서울경제신문사장 및 후원 4개 단체장
- 특전: 전용모작 보도홍보 및 상설전시

주최: 서울경제신문사·건설부
 후원: 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사업협회·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